

## 『멋진 신세계』에 나타난 진보된 과학과 인간의 자유의 문제

노 동 욱

### I. 서 론

SF 문학은 1960년대 이후 새롭게 재조명되며, 오랜 소외에서 벗어나 문단과 학계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SF 문학은 그동안 서구에서도 심리적 깊이와 심미적 수준에 결함이 있는 다소 열등한 장르, 또는 비주류문학으로서 비평가들의 냉대를 받아왔다. 또한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은 우리나라에서 ‘공상과학소설’로 번역되어 통용되어 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SF를 그저 허황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sup>1)</sup> 그러나 SF 문학을 단순히 터무니없는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는 주제 면에서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 타자에 대한 이

---

1) 『비명을 찾아서』, 『과란 달 아래』 등의 과학소설을 펴낸 바 있는 복거일은 1992년 발표한 에세이 「과학소설의 간략한 소개」의 [서언]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소설에 대한 편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과학소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외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번역되고 우리 작가들의 작품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학소설 분야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독자들에게 과학소설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남아 있고 시장엔 좋은 안내서들이 보이지 않는다.”

해,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문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등, 우리의 현실세계와 맞닿아 있는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SF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는 ‘환상’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꿈’이자, 모든 리얼리스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유토피아’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환상’은 현실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리얼리티의 한 면이지, 결코 현실과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성곤 487-88).<sup>2)</sup>

이러한 맥락에서, SF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는 ‘환상’이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세계를 더욱 나은 모습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작가들의 고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과학의 힘을 빌어 우리의 현실세계를 더욱 발전되고 진보된 세계로 만들고자 한 작가의 환상이 투영된 작품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로 과학에 의한 이상적 사회를 추구한 작품은 베이컨(Francis Bacon)의 「새로운 아틀란티스」(“New Atlantis”)였다.<sup>3)</sup>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그려지는 과학적 이상 국가 벤살렘에는 살로만 하우스(Saloman's House)라는 과학 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왕국의 등불”(Bacon, “Atlantis” 206) 역할을 하고 있다는 벤살렘인의 말이 상징하듯, 살로만 하우스는 벤살렘인들을 계몽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벤살렘인들에게 풍부한 물자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의 원인을 드러내 규명함으로써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벤살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베이컨이 신뢰했던 과학의 힘이며,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자, 베이컨이 꿈꿨던 과학적 이상국가의 모습이었다. 롤리(W. Rawley)는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서문(To the Reader)에서 살로만 하우스

2) 이상, SF 문학에 대한 내용은 김성곤 교수의 『미국 현대문학』(민음사, 1997), 467-506을 참고함.

3) 베이컨은 법률가이자 재판관인 동시에 수필을 쓴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영국의 경험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에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 특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했던 과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생애 중, 죽음에 대한 일화는 그의 과학자적 면모를 잘 보여준다. 베이컨은 1626년 3월 말, 어느 눈 오는 날에 런던 교외에서 독감에 걸려 사망했다. 당시 닭고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냉동 효과를 실험하던 그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수집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찬바람에 독감에 걸려 죽음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에게 ‘실험과학의 첫 번째 순교자’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의 과학에 대한 열의와 사명감을 지녔던 베이컨은 그의 저서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벤살렘(Bensalem)이라는 과학적 이상 국가를 상정하고, 그 이상 국가 위에 자신이 꿈꾸었던 사회적 비전을 그려낸다(김종갑 100).

의 설립 목적에 대해 “자연을 해석할 뿐 아니라 인간의 이익에 이바지할 위대하고 놀라운 연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컨은 「노뎀 오르가눔」(“Novum Organum”)에서 “자연의 비밀도 제 스스로 진행되도록 방임했을 때보다는 인간이 기술로 조작을 가했을 때 그 정체가 훨씬 더 쉽게 드러난다”고 말한 바 있는데(127), 베이컨의 환상은 바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연에 ‘조작’을 가해 인간의 이익에 이바지할 연구 결과를 산출하여, 인간의 현실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드는 것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의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비롯된 과학적 유토피아 소설들은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과학의 힘을 빌어 인간의 삶을 더욱 발전되고 진보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해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등장한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1932)는 이전의 유토피아 소설들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여기서, 자주 회자되는 『멋진 신세계』의 제사(epigraph)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토피아들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성격의 놀라운 질문에 직면해 있다.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가 철저히 현실화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유토피아들은 실현 가능하다. 삶은 유토피아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세기에는, 지식인들과 교양을 갖춘 계층이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를 회피하고 덜 “완벽하고” 더 “자유로운” 비유토피아적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도를 꿈꾸게 될 지도 모른다.<sup>4)</sup>

이처럼 헉슬리는 과학적 유토피아의 실현을 꿈꿔왔던 베이컨과 같은 작가들과는 달리, 오히려 그들이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현실화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고찰하며, 이러한 유토피아의 현실화에 대한 경계를 표출할 목적으로 『멋진 신세계』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베이컨이 꿈꿔왔던 환상, 즉 자연과 인간의 삶에 대한 과학의 ‘조작’이 20세기의 헉슬리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으며, 과학적 유토피아를 꿈꿔왔던 고심이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유토피아를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비유토피아적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으로 뒤바뀐 아이러

4) 권진아. 『근대 유토피아 픽션 연구』(문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 60.

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sup>5)</sup> 『멋진 신세계』의 제사로 인용된 20세기 초 러시아의 종교 철학자 베르자예프(Nicholas Berdiaeff)의 지적처럼, 20세기에 접어들어 혁슬리는 베이컨의 고심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놀라운 질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혁슬리는 1946년의 서문(Forward)에서, 자신이 『멋진 신세계』에서 그리고 있는 악몽을 600년 후로 상정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악몽의 공포는 100년 안에 현실화되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말하며, 과학기술의 빠른 발달과 그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xxxiii). 21세기에 접어든 현대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혁슬리가 살았던 20세기보다 훨씬 더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을 목도하고 있기에, 혁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그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멋진 신세계』의 제사에서, 혁슬리는 털 ‘완벽하더라도,’ 더 ‘자유로운’ 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혁슬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이 발전된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유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혁슬리는 『다시 찾은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Revisited*, 1958)의 서문에서 자신이 그동안 써온 것은 바로 “자유와 그것의 장애물에 대한 주제”이며, 자신은 작품들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많은 양상들에 대해 다뤄왔다고 밝히고 있다(viii).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학이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혁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진보된 과학과 전체주의가 결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인간이 진보된 과학과 사회의 이익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

5) 『멋진 신세계』의 제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폭풍』(*The Tempest*)의 한 구절을 인용(allusion)한 것이다. 『폭풍』에서 미란더(Miranda)는 알론조(Alonso) 일행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경탄스럽다! / 훌륭한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시네! /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 멋진 신세계여 / 훌륭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Shakespeare 197-98). 그러나 비록 알론조 일행이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지만, “멋진 신세계”라는 미란더의 외침은 그들 일행이 사악하기 그지없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Grushow 4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멋진 신세계』의 존(John)은 버나드(Bernard Marx)가 자신을 문명세계로 데리고 갈 거라는 사실을 듣고 흥분과 기대에 차 ‘멋진 신세계’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신세계의 실상을 경험한 후 존이 내뱉는 ‘멋진 신세계’라는 외침은 조소와 혐오가 섞인 아이러니한 외침이다. 이처럼 『멋진 신세계』는 제목에서부터 혁슬리가 소설 속에서 말하고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는지, 즉 진보와 안정이라는 혜택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개성, 자유, 독립성, 인간성, 다양한 인간적인 감정들에 대해 조명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신세계의 이데올로기적 언어와 셰익스피어 언어와의 대조를 통해 헉슬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결합한 언어의 훈육적 힘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멋진 신세계』에서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 공동체나 사회의 안정만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존적 가치가 부정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II. 이데올로기적 언어와 문학 언어

헉슬리는 그의 저서 『과학 · 자유 · 평화』(*Science, Liberty and Peace*)에서 다수에 대한 소수의 억압에 대해 그로부터 반세기 전 톨스토이(Tolstoy)가 한 말을 인용한다: “만일 사회체계가 자체가 잘못 되어 있고(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수를 억압한다면, 자연을 극복한 인간의 모든 업적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권력과 억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1). 헉슬리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수를 억압한다면, 인간의 모든 업적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권력과 억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뿐이며, 반세기 전 톨스토이 시대의 상황은 20세기에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더 나아가 헉슬리는, 톨스토이 시대에 비해 20세기에 들어서 과학과 기술은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과학이 이러한 소수 독재 및 전제정치의 유일한 원인적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국 과학의 발전이 20세기에 일어난 자유의 쇠퇴, 권력의 집중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cience* 1). 즉, 전제정치의 정신은 언제나 그것이 의도하는 것 이상이었으나, 그 조직이나 물질적인 장비가 취약했던 과거와는 달리 날로 진보하는 과학과 기술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데, 헉슬리는 20세기에 들어서 만일 중앙의 행정기관이 억압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만큼 효율적인 탄압의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Science* 3). 헉슬리가 그리고 있는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는 진보된 과학기술을 통해, 그 자신의 표현처럼 ‘거의 기적에 가까운 만큼 효율적인 탄압의 기계’

를 갖추고 있다.

신세계가 표방하는 목표는 바로 “공동체, 균등, 안정”이다(3).<sup>6)</sup>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는 필연적으로 대가가 따르는데, 헉슬리 이론의 핵심은 바로 “어떤 것이든 [성취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엄격한 통제를 통해 획득된 안정은 자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Science* 23). 헉슬리는 “전반적인 진보에 대한 믿음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소원적인 꿈에 기초하고 있다”(Science 31)고 말하며, 당대 진보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을 보내던 사람들의 판타지(fantasy)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진보된 과학과 전체주의가 결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우리 인간이 진보된 과학과 사회의 이익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살펴해보고자 한다.

『멋진 신세계』는 먼 미래인 “26세기의 과학적 전체주의”를 다루고 있다(Walsh 1445). 함께 전체주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와 자주 비교된다.<sup>7)</sup> 그러나 이 두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주의의 성격은 매우 다른데, 『1984』의 전체주의가 “공포에 의한 복종”에 근거한 것이라면, 『멋진 신세계』의 그것은 “무의식적인, 심지어 행복한 복종”이라는 점이다(Schmerl 332). 따라서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그리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의 특색은 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교묘한 사용을 통한 세뇌와 훈육의 힘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신세계에서는 태아 적부터 인간의 계급을 미리 정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사회화된 인간”(13)을 내놓으며, 그들은 열 훈련(Hot Conditioning) 및 신 파블로프식 훈련(Neo-Pavlovian Conditioning) 등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성장한다. 이러한 훈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국민들이 자신이 태어나며 속하게 될 계급에 대한 사회적 숙명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을 피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것이[. . .]”하고 소장이 격언을 말하듯 입을

6) 이하 『멋진 신세계』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표기함.

7)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오웰의 『1984』는 공통적으로 전체주의를 그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소설이라는 점에서 자주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머거리지(Malcolm Muggeridge)가 “오웰은 과거를 사랑했고, 현재를 증오했으며, 미래를 두려워했다”(Meyers 144 재인용)는 말로 그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바처럼, 오웰은 전체주의가 야기할 수 있는 미래의 악몽에 대한 두려움을 그의 소설에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헉슬리와 자주 비교된다.

열었다. “바로 그것이 행복과 미덕의 비결이야—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모든 조건반사적 단련이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 자신들의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숙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16).<sup>8)</sup>

그들의 훈육 방법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언어’를 통한 훈육이다. 언어를 동반하지 않는 훈육이 조잡하고 거친 반면에, 보다 미묘한 개념의 구분과 보다 복잡한 행동의 훈련을 위해서는 “언어가 사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28). 헉슬리는 『과학·자유·평화』에서 진보된 과학기술이 도래한 시대에서 언어가 갖는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문필과 발인은 적어도 무력만큼의 강력함을 지닌다. 왜냐하면 무력은 말 또는 글로 쓰인 언어에 따라 행사되기 때문이다. 진보된 과학기술은 당국자들에게 더 강력하고 훌륭한 강압정치의 수단뿐만 아니라 이전의 통치자들의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세한 설득의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강화시켜 왔다. 운전기와 최근에 와서는 라디오가 정치력 및 경제력의 중앙 집중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8)

헉슬리는 특히 신문보다는 라디오 등의 음성 매체가 갖는 위력에 주목하며, “과거의 위대한 웅변가들은 기껏해야 수천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응용과학의 덕택으로 말 많은 독재자가 수천만 명의 귀에 감정이 장전된 복음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Science 10).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극소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발전된 음성 매체가 지니는 프로파간다의 위력에 경계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음성 매체의 훈육적 힘에 대한 헉슬리의 경계심은 『멋진 신세계』에 그대로 투영된다. 신세계에서는 국민들에게 내려지는 모든 지령과 선전이 마치 지상명령과도 같이 중앙집권적 권력의 통제 하에 있는 스피커 방송에서 내려진다. 이러한 방송은 수면 중인 아이들에게 수십 번씩 반복해 계급의식을 설교하기도 하고, 수천, 수만 번씩 국민들에게 ‘만인은 만인의 공유물이다’와 같은 국가 이념을 선전하기도 한다.

8) 이하 『멋진 신세계』의 번역은 이덕형 역의 『멋진 신세계』(문예출판사, 1998)를 참고하여 번역함.

권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한 푸코(Michel Foucault)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성격 짓는 다양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권력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론의 생산, 축적, 유통 및 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93-96), 신세계의 소수 권력자들은 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들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종 선전 사무국이나 스피커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국가 이념의 담론을 생산·유통하는 것이다. 소장(the Director)은 국민들의 의식, 즉 판단하고 욕망하고 결정하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혼육을 통해 국가가 부여하는 이념 자체가 되어버린다고 말하며 승리감에 사로잡힌다.

“마침내 아이들의 의식은 암시 자체가 되어 버리고, 그 암시의 총계는 아이들의 의식 자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의식뿐만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평생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판단하고 욕망하고 결정하는 의식—바로 그것이 그러한 암시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암시는 우리 자신이 부여하는 암시인 것입니다!” 소장은 승리감에 사로잡혀 거의 고함치다시피 했다. “국가로부터 수여되는 암시인 것입니다”하고 소장은 가까이 있는 탁자를 힘껏 두드렸다. (28-29)

버나드의 냉소적인 말처럼, “6만 2천 4백 회의 반복이 한 개의 진리를 만드는” 것이다(47).<sup>9)</sup>

이데올로기적 언어의 힘이 인간의 사고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에서, 버나드는 혼육적 힘에 의해 세뇌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홀로 깨어있기에 외로운 ‘이단아’이다. 그는 자아와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뭘지 모를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호기심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 헬름홀츠(Helmholtz Watson)와 함께, 혹시 사정이 다르다면 자신들이 느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지금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외의 어떤 다른 언어적 표현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 고심하기도 한다. 버나드는 신세계로부터 벗어나 잠시 뉴멕시코 아메리카원주민보호

9) 신세계의 이데올로기적 언어는 사람들을 세뇌 및 혼육시킴으로써 인간의 사고의 폭을 좁히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1984』의 신어(Newspeak)의 최종적인 목표가 인간의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다”(Orwell 46)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구역(the New Mexican Reservation)으로 외유를 떠나는데, 이는 훈육의 힘으로 획일화된 문명국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버나드는 청년 존을 만나는데, 존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감정들에 눈을 떠가는 과정은 바로 버나드가 갈망해왔던 그 무언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존은 어머니 린다(Linda)가 준 신 세계의 책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셰익스피어에 매료된다.

아름한 언어가 그의 의식 속을 휘감았다. 천둥소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언어들은 진동했다. 북이 말할 수 있다면 여름날 춤출 때의 북소리와도 같았다. 수확의 노래를 부르는 남자들의 음성처럼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웠다. 미치마 노인이 깃털과 조각된 단장과 뿔조각과 돌조각에게 부르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키아슬라 칠루 실로크웨 실로크웨. 키아이 실루 실루, 치슬—하지만 미치마 노인의 주문보다 더 훌륭했다. 그것은 그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다. 겨우 반밖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린다에 대해서도 소름끼치도록 아름다운 주문을 말하고 있었다. 침대 곁 마룻바닥에 빈 잔을 놓아둔 채 코를 골며 잠자고 있는 린다에 관하여, 그리고 린다와 포페에 관하여, 그 린다와 포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131-32)

존은 『햄릿』(Hamlet)의 한 구절을 읽고, 어머니 린다와 포페(Popè)의 관계에 대해 깨닫는다. 비록 이를 통해 그는 분노를 느끼게 되지만, 셰익스피어의 언어는 그의 의식 속을 휘감으며, 존에게 미치마(Mitsima) 노인의 마법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햄릿』을 읽고 존이 느끼는 감정이 비록 분노일지언정, 그 이야기는 존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아직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이야기는 인간과 인간의 감정을 그린 ‘인간’의 이야기이기에, 그에게 끔찍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다. 즉, 존은 셰익스피어와의 조우를 통해 애정, 질투, 분노, 증오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헉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셰익스피어로 대변되는 문학의 힘이라 생각된다.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149)라고 말한 바 있는데, 존은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조우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이 크게 확장된다.<sup>10)</sup>

존은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는 포페에게 극중의 햄릿처럼 오이디푸스

(Oedipus)적 감정에서 기인한 질투와 증오심을 느끼고 포페를 칼로 찌르는데, 잠시 존의 눈을 응시한 포페는 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오히려 웃음을 터뜨린다. 존 역시 셰익스피어의 언어를 통해 “증오라는 감정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포페를 보다 현실적인 인물로 형상화할 수 있게 된다”(132). 이처럼 존이 원주민보호구역에서 셰익스피어 작품과 접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여러 다양한 감정들을 소마(soma)라는 약품을 통해 ‘행복함’이라는 단일한 감정으로 획일화시키는 신세계와 대조를 이룬다. 기실 셰익스피어는 헉슬리에게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예술가의 화신”이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맥키어(Jerome Meckier)는 셰익스피어를 인용하는 존의 말이 “신세계 사람들의 일방적이고 불완전하며 기능 위주의 생활과 대조되는,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풍부한 관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131-32). 다시 말해, 셰익스피어 작품은 인간의 모든 군상들이 느끼는 여러 다양한 감정, 즉 애정, 증오, 질투, 욕망 등이 얹혀 펼쳐지는 인간 세상의 복잡다단함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애정이나 행복의 감정은 물론이요, 치기 어린 질투나 증오, 집착, 분노, 슬픔, 외로움의 감정마저도 모두 ‘인간의 감정’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감정들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더 나아가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세계의 논리대로 비록 이러한 인간의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인간과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할지라도 말이다.

### III. 개인이 부재하는 사회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세계에서 버나드는 훈육적 힘에 의해 세뇌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동료인 헬름홀츠와 함께 깨어있기에 외로운 ‘이단아’적 인물이

- 
- 10) 사실 우리의 삶에서 언어의 영향력은 너무도 막강한 것임을 우리는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나 “우리가 샘물 쪽으로 가거나 숲 쪽으로 갈 때 우리는 항상 ‘샘물’이라는 말 또는 ‘숲’이라는 말을 통과하게 되며, 이는 우리가 이 말을 발설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언어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경렬 136-37). 그들이 이 말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대체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또는 세계는 곧 언어적 심상(心象)으로 인식된다는 점일 것이다(장경렬 137).

며, 존은 셰익스피어의 언어를 통해 신세계의 인간들은 느낄 수 없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감정들에 눈을 떠가는 인물이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이들의 성취는 점점 빛을 잃어간다. 존을 신세계에 소개시킴으로써 세속적 성공을 맞본 버나드는 “이제까지 불만스러웠던 세계와 완전히 타협”하게 된다(157).

버나드와 더불어, 특히 존의 성취가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이는 전반부에 그가 셰익스피어 언어와의 대면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인간 내면의 여러 다양한 감정들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의 언어가 신세계의 이데올로기적 언어와 대비되는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를 접한 후 존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대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슈메를(Rudolf B. Schmerl)은 존을 일컬어 “주니족 인디언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을 이상하게 섞어 놓은 인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329). 소설의 후반부에서, 그의 언어는 모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에서 그치는데, 그는 셰익스피어 없이는 스스로 이 세상과 직접 대면할 수 없다. 즉, 존은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판단력이 없고, 그의 언어는 모두 셰익스피어에게서 빌려온 것이기에, “하나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로서 지녀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권진아 77). 셰익스피어의 언어가 존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면, 그는 셰익스피어의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알지 못하기에, 그의 인식의 한계 역시 셰익스피어에게 갇혀 있다. 실제로 존은 무스타파(Mustapha Mond)와의 대담에서, 무스타파가 신에 대해 묻자 전혀 대답할 수 없다. 신의 영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라는 영역의 테두리 밖의 것이기에, 이를 표현할 언어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는 고독한 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달빛 아래 창백하게 드러나 있는 고원과 깎아지른 절벽의 그늘진 어둠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는 정녕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휘가 없었다. 셰익스피어에게도 없었다”(230).

결국 그는 소설의 결말에서 벌거벗은 채 가죽 채찍으로 자해를 하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와도 같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희화화된다. 존은 직접 사냥한 야생 동물 외의 음식을 “역겨운 문명화된 물질”(246)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굶어죽는

다고 해도 그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존이 보여주는 이러한 문명에 대한 극도의 반감 역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하다. 헉슬리는 1946년의 서문에서, 자신의 소설의 심각한 결점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소설의 결점 중 하나로, “존에게는 유토피아에서의 광기어린 삶, 혹은 인디언보호구역에서의 원시적인 삶이라는 단 두 가지 대안만이 주어지는데, 후자의 삶은 어떤 면에서 더욱 인간적인 삶이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역시 못지않게 괴상하고, 비정상적이다”(xxv)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헉슬리 역시 존을 신세계의 대안으로서 그리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세계의 통치자 무스타파는 자해를 하다가 결국 자살을 택하는 존과는 달리,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인물이며, 오히려 이 소설에서 “가장 분별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Schmerl 332). 무스타파가 통치하는 신세계는 인간의 ‘행복’을 지상과제로 삼고, 과학의 힘을 빌려 인간의 질병과 노화를 정복한다. 신세계에서는 젊음을 잃고 팽팽한 피부를 잃은 얼굴을 찾아볼 수 없으며, 날씬하지 않고 곧바르지 않은 육체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일그러진 노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신세계에서는 심지어 죽어가는 60대 여성들도 모두 앳된 소녀의 용모를 하고 있다. “문명은 멸균”(121)이라는 모토 하에, 신세계에는 지지분한 오물이라든가 노년이니 질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며 슬프거나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결코 외롭지 않고 마냥 유쾌하다. 그곳은 ‘행복’이 매일 지속되는 곳이다. 기분전환이 필요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영화관(feelies)에 가면 된다. 신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소마라는 약물인데,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슬픔, 분노, 외로움 등, 감정의 걱정 없이 오로지 ‘행복감’만을 느끼게 해준다. 이처럼 신세계는 분명 우리 인간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만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쿠마(Krishan Kuma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멋진 신세계는 헉슬리의 명백한 의도대로 완성된 지옥인가? 우리는 그 세계에 몇 가지 불안의 근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혹시 더 긍정적인 것들이 시사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격리된 구조를 좀 더 인간적 성취의 약속으로 해동시킬 수 있을 만한 무엇의 함의는 없었는가? 유토피아들은 흔히 작가들이 보지 못한, 혹은 의도되지 않았던 디스토피아의 자질들을 품고

있다. 이는 또한 디스토피아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디스토피아도, 아무리 왜곡되고 축소된 형태로라도, 유토피아의 충동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sup>11)</sup> (286)

그러나 쿠마의 말처럼 이 소설이 애매모호함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사람들의 ‘행복’이 진정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그들은 잘 살고 있어”(220)라는 무스타파의 자신만만한 말처럼 그들이 진정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신세계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실체가 사실은 모두 사회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통치자는 “안정. 사회의 안정 없이 문명은 있을 수 없다. 개인적인 안정 없이는 사회의 안정도 없다”(42)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의 안정과 문명의 유지를 위해 그들에게 선결되어야 할 요소가 바로 개인의 안정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세계의 통치자들이 생각할 때, 개인이 감정을 가지면 사회는 동요하는 법이며, 불안정은 곧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신세계는 개인의 정열과 걱정, 그리고 고통, 고독, 회한 등의 강렬한 감정을 경계한다. 따라서 신세계는 어머니라든가 연인이라든가 하는 관계를 사전에 부정하여, 국민들이 누군가에게 몰두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신경을 기울인다. 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가 아닌 병(bottle) 속에서 태어난 신세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박탈당하고,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연인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대상을 박탈당하며,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행복’이라는 감정 속에 부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부여하는 행복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멋진 신세계』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부여하는 행복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소마이다. 소마에 중독된 린다의 얼굴에는 그저 “백치 같은 행복감”이 감돌뿐이며, 그녀의 미소는 “유아적 만족감의 미소”이다(200). “그녀는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155)라는 표현처럼, 항상 소마에 중독된 채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그녀에

11) 번역의 출처는 권진아 67.

게서 의식이나 지식, 믿음 따위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헉슬리는 오웰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 세대에는 세계의 통치자들이 곤봉이나 감옥보다는 유아적인 훈육과 마취, 최면이 통치 도구로서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14). 『멋진 신세계』에서 소마는 바로 헉슬리가 오웰에게 쓴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어린애 같은 만족감’을 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통치 방식이나 이념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효율적인 통치 도구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마를 보급 받는 신세계 사람들에게 존은 “여러분은 노예 상대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갓난아기 상대가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갓난아기들입니다. 가냘프게 우는 젖먹이들입니다”라고 외치며, 소마를 “영혼의 독”으로 규정한다(211-12). 존의 눈에 소마를 통한 행복은 그저 “거짓되고 기만적인 행복”(179)일 뿐이다. 이처럼 신세계는 행복을 ‘훈련’시키는 사회이기에, 존은 “불행해질 권리”(240)를 요구한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240).<sup>12)</sup>

- 12) 웰즈(H. G. Wells)는 『타임머신』(*The Time Machine*)에서, 미래 여행을 하는 시간여행자(The Time Traveller)의 시선을 통해 ‘안정’만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완전한 안락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상황 아래에서, 넘치던 활력이 연약함으로 바뀌어 간 것 같다.[...] 서로의 육체적 힘이 균형을 이루고 또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지적인 힘도 별 효용가치가 없다.[...] 의심할 여지없이 내가 본 아름다운 건축물은 이제는 의미를 상실해버린 인류의 활기가 마지막으로 분출된 결과이리라. 그리고 그 활기는 주위의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소멸되었고, 마침내는 최후의 위대한 평화를 낳았으리라. 활기를 안전 속에 가두어두면 그렇게 변해 가는 법이다. 처음에는 예술과 성적 쾌락에 몰두하지만 이내 무기력과 쇠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술적 열정마저 사라져 버린다. 바로 내가 목격하고 있던 그 시대야말로 예술적 정열이 거의 죽어버린 시기였다. 꽃으로 몸을 장식하고 햇빛을 받으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예술적 정열의 모습이었고, 그 이상의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도 결국 쇠하여 자족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리라. (32-33)

시간여행자가 서술하고 있는 안정만이 강조된 사회는 안락과 안전의 과도한 추구로 인해 용기와 호전성, 활기와 정열이라는 덕목을 잃어버린 시대이다. 그들에게서 삶에 대한 치열함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기력과 쇠멸뿐인데, 시간여행자는 그들의 평화를 ‘죄

신세계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회계급예정실(the Social Predestination Room)에서 알파(Alpha)부터 엡실론(Epsilon)까지의 계급으로 분류된다. 태아들은 그들의 예정된 계급에 따라 호르몬과 산소의 양을 각기 다르게 공급받는다. 이처럼 신세계의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들의 ‘본질’이 정해진 채 태어나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최하위 계급인 엡실론 계급의 삶을 예로 들면, 그들은 사회의 궂은일을 하기 위해 난쟁이나 눈이 없는 괴물로 태어나, 자신이 속한 계급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그들의 사체는 회수되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돌멩이나 책상 등의 사물과는 달리, 인간은 그 ‘본질’이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먼저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즉 인간이 세상에 나타나서, 자신과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존주의자가 상상하는 사람이란 그것이 정의될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엇이 되어,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이 될 것이다.[. . .] 사람은 다만 그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가는 그대로이다.[. . .] 사람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 .] 이것이 또한 사람들이 주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 (Sartre 22-23)

그러나 사회계급예정실에서 미리 그 ‘본질’이 예정된 채 태어나는 신세계의 인간들은 목수가 만들어내는 책상이나 의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헤세(Hermann Hesse)의 표현을 빌리면, “표준화된 기계”(221)에 불과하다. 신세계에는 ‘사회’는 존

---

후의 위대한 평화’라는 반어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다. 웰즈가 『타임머신』에서 비판하고 있는 안정만이 강조된 사회는 바로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와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라는 존의 외침은 강한 울림을 갖는다.

재하나 실존하는 ‘개인’은 없다.

#### IV. 결 론

와일드(Oscar Wilde)는 “유토피아가 포함되지 않은 세계 지도는 홀깃 들여다볼 가치도 없는데, 그것은 인류가 늘 도달하고자 하는 나라를 빠뜨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와일드의 말처럼, 인간은 언제나 유토피아를 꿈꿔왔으며, 유토피아를 실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인류에게 많은 진보를 가져다주었다.<sup>13)</sup>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쓰여진 17세기에는 물론, 문명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21세기의 지금 이 시점에서든, 인간은 언제나 당면한 인간의 상황보다 더욱 ‘멋진 신세계’를 꿈꿔왔으며, 또 꿈꾸고 있다. 그러나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멋진 신세계’를 꿈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져 현실화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진정 염원해왔던 바람직한 유토피아의 모습인지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유토피아 소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이 그토록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비로소 실현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이 꿈꿔왔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그것만큼 허무한 악몽이 어디 있겠는가?

보네جت(Kurt Vonnegut)에 의하면, SF 작가들만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온 작가들은 없다. 보네جت은 그의 소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 씨』(God Bless You, Mr. Rosewater)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어 SF 소설 작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오직 여러분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멋진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오직 여러분만이 인생이란 우주여행이라는 것, 잠깐 지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수십 억 년 동안 계속되는 항해라는 것을 아는 미친놈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진

13) 프랑스(Anatole France)는 유토피아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인류에게 많은 진보를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이전 시대의 유토피아인이 없었다면 인간은 아직도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살며 나체로 생활하고 있으리라. 처음으로 도시를 설계한 자들은 유토피아인이다.[...] 풍부한 꿈으로부터 유익한 현실이 생겨났다. 유토피아는 모든 진보의 원리이고 더욱 좋은 미래를 위한 시도이다”(Mumford 22 재인용).



정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배짱을 지녔고, 기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도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거대하고 단순화된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엄청난 오해, 실수, 사고, 재앙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무한한 시간과 거리에 대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신비에 대해 변민하며, 바로 지금 우리가 다음 십 억년 동안의 우주여행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변민할 만큼 괴짜 같은 사람들입니다. (18)

오늘날, 과학기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몰라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에 따른 수많은 부작용과 윤리적 논란을 목도하고 있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 전, 우리가 회구해온 이상향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담고 있으며, 보네것의 말처럼 우리 인류가 과학의 힘으로 인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헉슬리는 과학이란 “다양성을 동일성으로 축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말하며, 이러한 과학의 원리는 말 그대로 ‘과학’의 원리로서 실험실에서는 전적으로 타당한 과정이지만, 인간사회의 문제에 응용될 때 “단순화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자유를 축소하고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억압과 획일화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Science 33-34). 『멋진 신세계』에서 셰익스피어로 상징되는 다양하고 총체적인 인간 세계의 원리란, 과학의 원리처럼 인과율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성격의 것이 아닌, 무한히 풍부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즉, 『멋진 신세계』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과학의 원리를 복잡다단한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할 수 있다. “포드 기원 632년인 이 안정의 시대”(4)에는, 사회의 ‘안정’은 존재하지만 역동적인 인간의 삶은 부재하기에, ‘멋진 신세계’는 멋지지 않다.

러셀(Bertrand Russell)은 『멋진 신세계』에 대한 논평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보다는 모험과 자결권, 그리고 힘을 원하며,” 누구도 “아편과도 같은 꿈 속”에서 살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11). 이러한 점에서 『멋진 신세계』는 안정과 행복, 그리고 모험과 주체성 사이의 갈등 속에 놓인 우리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과학이 발달된 세계에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 인

간의 용기와 모험심, 활기와 열정 등, 삶에 대한 치열한 태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는 『멋진 신세계』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유토피아 이야기』(*The Story of Utopias*)에서의 머프드(Lewis Mumford)의 말로 끝맺음하고자 한다: “망망대해에서 모험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이라고 하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른다. 그들은 기껏해야 삶의 반박에 알지 못하는 것이다”(17).

<서울대학교>

## 인용문헌

- 권진아. 『근대 유토피아 픽션 연구』. 문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
- 김성곤. 『미국 현대문학』. 서울: 민음사, 1997.
- 김종갑. 「프랜시스 베이컨과 과학적 유토피아」. 『새로운 아틀란티스』. 프랜시스 베이컨 지음. 김종갑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09. 93-132.
- 복거일. 『과학소설의 간략한 소개』. Web. 04 Sep. 2010.  
「<http://blog.naver.com/liberalian?Redirect=Log&logNo=90000095684>」.
- 장경렬. 「언어의 수사성과 이념성 – 언어의 관점에서 본 인문학의 문제」. 『삶, 반성, 인문학 – 인문학의 인식론적 구조』. 장희익 외 지. 서울: 태학사, 2004. 121-56.
- Bacon, Francis. “New Atlantis.”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Ed. Robert M. Hutchins. Vol. 30.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52. 199-214.
- \_\_\_\_\_. “Novum Organum.”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Ed. Robert M. Hutchins. Vol. 30.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52. 105-98.
-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Trans. Colin Gordon et al. NY: Pantheon, 1980.
- Grushow, Ira. “Brave New World and The Tempest.” *College English* 24.1 (1962): 42-45.

- Hesse, Hermann. "Review in *Die Neue Rundschau* (Berlin), May 1993." Trans. G. W. Field. *Aldous Huxley: The Critical Heritage*. Ed. Donald Watt. NY: Routledge, 1997. 221-22.
- Huxley, Aldous. "A Letter to George Orwell." *Brave New World*. NY: Harper, 2006. 12-14.
- \_\_\_\_\_. *Brave New World*. NY: Harper, 2006.
- \_\_\_\_\_. "Forward." *Brave New World*. Ed. Mark Spencer Ellis. Harlow: Longman, 1983. xxv-xxxiii.
- \_\_\_\_\_. "Forward." *Brave New World Revisited*. NY: Harper, 2000. vii-vii.
- \_\_\_\_\_. *Science, Liberty and Peace*. NY: Harper, 1946.
- Kumar, Krishan. "Science and Anti-Utopia: Aldous Huxley and *Brave New World*." *Utopia and Anti-utopia in Modern Times*. Oxford: Blackwell, 1991. 224-87.
- Meckier, Jerome. "Shakespeare and Aldous Huxley." *Shakespeare Quarterly* 22.2 (1971): 129-35.
- Meyers, Jeffrey. "The Genesis of 1984." *A Reader's Guide to George Orwell*. London: Thames, 1975. 144-54.
- Mumford, Lewis. *The Story of Utopias*. Gloucester: Smith, 1959.
- Orwell, George. 1984. NY: New America Library, 1961.
- Rawley, W. *To the Reader*. Web. 03 Sep. 2010.  
<[http://www.lordverulam.org/New\\_Atlantis.html](http://www.lordverulam.org/New_Atlantis.html)>.
- Russell, Bertrand. "Review in *New Leader*, March 1932." *Aldous Huxley: The Critical Heritage*. Ed. Donald Watt. NY: Routledge, 1997. 210-12.
- Sartre, Jean-Paul. *Existentialism Is a Humanism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Ed. John Kulka. Trans. Carol Macomber. London: Yale UP, 2007.
- Schmerl, Rudolf B. "The Two Future Worlds of Aldous Huxley." *PMLA* 77.3 (1962): 328-34.
- Shakespeare, William. *The Tempest*. Ed. Stephen Orgel. Oxford: Oxford UP, 1987.
- Vonnegut, Kurt. *God Bless You, Mr. Rosewater, Or Pearls before Swine*. NY: Dial,

2006.

Walsh, John. "The Late Author Felt Scientists Tend To Search for Truth, Ignore Consequences." *Science, New Series* 142.3598 (1963): 1445-1446.

Wells, H. G. *The Time Machine*. Ed. Patrick Parrinder. London: Penguin, 2005.

Wilde, Oscar. *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 Pierre J. Proudhon Memorial Computer. Web. 03 Sept. 2010.

<[http://flag.blackened.net/revolt/hist\\_texts/wilde\\_soul.html](http://flag.blackened.net/revolt/hist_texts/wilde_soul.html)>.

Wittgenstein, Ludwig.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NY: Humanities, 1951.

## | Abstract |

## The Problem of Human Freedom and Scientific Advancement in *Brave New World*

Dong-Wook Noh (Seoul National University)

Scientific utopian novels originating from the idea of “New Atlantis” in the 17th century have expressed the desire to change people’s lives into a more developed and advanced state by borrowing the power of science as the 18th and 19th centuries progressed. However, it is notable that Aldous Huxley’s novel *Brave New World* (1932) started off from a totally different context than prior utopian novels. Unlike writers such as Francis Bacon who dreamt of realizing a utopia, Huxley considered the problems that could occur when the utopia they dreamt of became reality, and planned his novel *Brave New World* with the aim of guarding against the realization of a utopia. In other words, the fantasy dreamt up by Bacon, that is, the fabrication of science against human life and nature was a nightmare to the 20th-century Huxley, and the great pains of dreaming up a scientific utopia was ironically reversed into the toil of preventing the utopia from happening and returning to a non-utopian society.

In his foreword of 1946, Huxley established the nightmare he depicted in *Brave New World* as occurring 600 years later, but he predicted that the horror of this nightmare would actually be realized within a hundred years while warning against the rapid advance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its side effects. We who are living in the modern day of the 21st century are witnessing a much more rapid advance in scientific technology than what Huxley had experienced in the 20th century, and therefo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voice warning against its side effects. Huxley’s novel *Brave New World* contains the humanistic self-examination that

questions whether the ideal we aspired to is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involves the serious introspection reflecting on how the human race may be in the state of heaven or hell due to the power of science.

The epigraph of *Brave New World* hints at Huxley's desire to return to a world less perfect but more free, while the foreword to *Brave New World Revisited* (1958) explores what he terms "the subject of freedom and its enemies." This paper addresses this problem of human freedom in a scientifically advanced society. In *Brave New World*, Huxley is in a certain way projecting the side effects that occur when science is combined with totalitarianism while pointing out the prices paid for the advance in science and the gains made within society, or in other words, the individuality, freedom, independence, humanity, and various human emotions lost in the name of advancement and security. By contrasting the ideological language of *Brave New World* with Shakespearean language, this paper reveals that Huxley cautions against the disciplinary power of language that is concomitant with scientific advancement. The paper also examines in *Brave New World* the process in which human beings are denied free will and existential worth as a result of the sole pursuit of security in a society and community through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 Key Words: Aldous Huxley, *Brave New World*, scientific utopia, human freedom, scientific advancement, disciplinary power of language

논문투고일 : 2012년 7월 1일

심사완료일 : 2012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8월 18일